

기초 교양교육에서 글쓰기의 역할: 손동현 교수에게 듣는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금년 1학기에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대 학장으로 취임한 손동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현재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손동현 교수는 기초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소개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손동현 교수(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대 학장)

지난 1학기에 학부대학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셨고 여전히 많이 바쁘실 텐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학부대학이 지난 1학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대학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학부제가 실시된 이후에 기초 및 전공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대학은 2002~2003년까지 교과과정의 개편을 진행하였고 그동안 기초 교육과정에서 방치되었던 영역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004년 봄에 학부대학 설립연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1년간의 준비 끝에 금년 1학기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학부대학은 기초 교양 학문의 성과가 대학의 존립을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학생들이 받는 교양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 교양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부대학에서는 어떤 교과과정이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핵심이 되는 교과과정은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과정은 네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과학기술 보고서 작성과 발표’가 그것입니다. 각 강좌는 40~45명이 정원이고 모든 학생들은 이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두 가지 글쓰기 과목은 각각 네 명의 비정년 전임교수가 맡고 있고 ‘스피치와 토론’은 세 명의 비정년 전임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강좌의 일부를 시간강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임교수는 16시간, 강사는 9시간의 강의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글쓰기 과목의 경우에 국문과와 철학과가 함께 워크숍을 통해 이 교과과정을 위한 통합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한 학기에 두 차례 첨삭 지도 주간을 갖고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지도합니다. ‘글쓰기

와 커뮤니케이션'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실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 교양교육에서 특별히 글쓰기 강좌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글쓰기 강좌와 스피치 및 토론 강좌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요?

지적인 작업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소화한 내용을 스스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논리적인 사고의 틀과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발견의 과정이 비판적 사고의 과정이고 그런 불일치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의 발견입니다.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적인 작업을 위한 이런 사고의 과정이 없다면 대학에서의 학습 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를 하기 위한 도구로써 글을 읽는 능력과 글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글을 읽는 능력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도구이고 글을 쓰는 능력은 문제를 발견·해결하는 도구입니다.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글쓰기 교육의 목적입니다.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 요구되고 그 행위는 공동 작업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공동 작업 중에 서로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사고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글쓰기 역시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을 가집니다. 교과목의 이름이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것은 논리와 수사학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분되어 있는 과목들이 통일된 강좌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러 제약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운영하셨는데, 학생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글쓰기 과목의 경우에 대면 지도의 효과가 높고 학생들의 평가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처음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는 쉽고 ‘학술적 글쓰기’는 힘들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교양학부의 목적과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교과목은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학술적 글쓰기를 수강한 학생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한 강좌당 학생 정원이 너무 많습니다. 강의실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강좌당 40명 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담당 교원의 신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임이란 위치는 담당 교수에게 강좌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게 만들지만 강사에겐 그런 책임감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생들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이 능력을 계발하는 강좌로서 학술적 글쓰기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학부대학은 매주 기업의 리더를 초빙하여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특강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능력입니다. 그것은 전문 지식이나 다양한 지식보다도 조직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식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의 효용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생명력을 가진 것은 토대로서의 사고 능력일 것입니다. 학술적 글쓰기는 이런 사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장님의 말씀으로부터 교양교육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양교육 안에서 글쓰기 교육이 잘 진행되어 의도한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요?

무엇보다도 대학 및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글쓰기 교육을 포함한 기초 교양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일종의 응급조치, 다시 말하면 과도기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글쓰기를 포함한 의사소통 능력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습득해야 하고 대학은 그렇게 얻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지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초·중·고등교육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고 대학에서의 교육도 그런 기초를 다지는 데 너무 소홀하였습니다. 전공 분야도 과거에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중 어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대학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쓰기 교육이 성과를 거두려면 능력 있고 경험을 가진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대학은 비정년 과정이 아니라 정년 과정의 전임교수로서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의자가 자신이 맡은 강의에 책임감을 가질 때 좋은 강의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글쓰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의 중요한 차이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적분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쓰기 교육은 글쓰기에 대한 기법과 함께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의자의 경험이 중요하며 그런 강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대학의 일들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인터뷰: 김준성(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